

부정문의 유형 분류

박형우

〈차 례〉

- I. 서론
- II. 부정과 부정문
- III. 부정문의 유형 분류와 문제점
- IV. 새로운 부정문의 유형 분류
- V. 결론

I. 서 론

국어의 부정문은 변형생성 문법의 유입과 함께 국어학 연구 과제로서 논의의 초점에 있었다. 이는 다른 언어와는 달리 국어의 부정문에 상이한 2가지 양식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상이한 2가지 양식에 의한 부정문의 존재는 6·70년대 기저구조와 표면구조라는 새로운 논의 방법을 도입한 변형생성 문법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흥미로운 주제가 아닐 수 없었다.

변형생성 문법의 도입과 함께 부정문에 대한 논의는 주로 이 서로 다른 표면구조를 갖는 두 부정문이 과연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인가에 관심의 초점이 모아졌고 이는 결국 두 부정문의 기저구조가 같은 것인가에 대한 논의였다. 이 문제에 대하여 박순함(1967), 이흥배(1970), 오준규(1971), 양동휘(1976), 이기용(1979), 김동식(1980), 서상규(1984) 등은 두 유형의 기저구조가 같다고 보아 그 의미도 같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송석중(1973), 임흥빈(1973), 구종남(1992)의 경우에는 두 유형이 다른

심층 구조를 갖는 것으로 보아 그 의미도 다를 것이라는 점을 주장했다. 특히 심층구조의 차이를 주장하는 이들이 내세운 주요한 근거가 소위 장형 부정문의 중의성 문제였는데 이는 부정의 범위에 대한 논의를 상세화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우리가 소위 장형 부정문이라 부르는 유형에서 나타나는 ‘-지’에 대한 논의도 사실상 그 출발점은 부정문의 동의성 여부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전통문법과 최현배(1937)에서는 부사형 어미로 보았고, 박승빈(1953), 엄정호(1987)에서는 명사형 어미로 보았으며, 임흥빈(1973)에서는 문말의 ‘-지’와 부정문의 ‘-지’를 같은 것으로 보아 종결 어미로 다루었다. 그리고 김동식(1980)에서는 이를 보문자로 보고자 했다. 이 외에도 부정소 ‘안(아니)’의 품사 분류 문제와 두 유형의 부정문에서 발생하는 제약에 대한 논의도 이러한 부정문 관련 논의에 일부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부정문의 분류에 관한 것이다. ‘부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의미적 논의에 포함되는 것이고 부정문의 초기 논쟁이 다른 2가지 유형의 부정문이 나타내는 의미에 대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부정의 개념이나 이를 기초로 한 부정문의 개념과 그 분류에 대한 논의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부정문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의미론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형태, 통사적 층위에서 주로 다루다 보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부정’의 개념에 대해 의미론적인 측면에서 정리한 후, 이를 중심으로 부정문의 개념과 부정문의 분류에 접근하고자 한다. 결국 이 논의는 부정문의 범위와 그 각 부정문의 유형 분류, 분류 명칭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게 된다.

II. 부정과 부정문

1. ‘부정’과 ‘부정문’의 의미

우선 ‘긍정’과 함께 ‘부정’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위와 같은 ‘부정’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그대로 ‘부정문’에 적용시킬 수는 없다. 위와 같은 개념과 관련이 있는 요소가 문장 내에 존재한다고 하여 이를 무조건 부정문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요소가 포함된 것을 부정문이라 한다면 아래 문장의 경우에는 부정문이라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긍정문이라 해야 할지 정하기가 쉽지 않다.

1-(가) 이완용은 자신이 매국노임을 부정했다.

(나) 사회를 어지럽히는 비양심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많다.

(대) 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수사 의문문 등에서 나타나는 부정문은 형식적으로는 부정문이라 하더라도 위의 개념에 따라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부정문으로 분류하는 것이 쉽지 않다.

2-(가) 왜 안 먹니? (어서 먹어라.)

(나) 한번 안 놀러 올냐? (한번 놀러 와라.)

(다) 너 아직 안 갔냐? (빨리 가라.)

사전적 정의만으로는 부정의 개념 규정을 정확하게 하기 어렵고, 이를 통해 부정문의 경계를 정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부정'이란 개념이 '긍정'이라 개념과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며, '부정'은 '긍정'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그 정확한 특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부정의 의미는 의미론적으로는 긍정문과 모순의 관계를 보이는 의미 작용의 뜻하며, 명제 논리적 입장에서 문장의 진리치를 바꾸는 기능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담화기능적, 즉 화용론적 측면에서는 청자의 잘못된 믿음을 수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청자의 질문에 대하여 부정 응답을 함으로써 청자의 신정보가 부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부정'에 대한 개념을 종합해 보면 우선 '부정'이란 단어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개념이 아니라 문장 이상이나 담화의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이다. 화용론 분야를 제외하면 '부정'이란 문장 이상의 단위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전적 정의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긍정문'과의 상대적 관계 속에서 '부정'과 '부정문'을 규정해야 한다. 긍정문이 존재하지 않는 부정문이란 있을 수 없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이 '긍정문'과 '부정문'의 관계를 가장 간단히 설명하면 '모순'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모순'은 필연적으로 거짓인 단언을 뜻하는 것으로 한 문장에 대한 부정문과 긍정문은

두 문장이 동시에 참이나 거짓이 될 수 없는 관계가 된다. 또한 어느 것을 중심으로 논의하든 모순 관계에서는 단언과 부정에 대한 상호함의 관계가 성립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의미론에서 모순 관계는 대립 관계의 하위 관계로 설명하기도 하고, 대립 관계와 동등한 위계로 설명하기도 한다. 어휘적 차원에서 ‘모순어’, ‘대립어’, ‘상보 대립어’ 등으로 불리는 어휘간의 관계가 모순이다.

결국 어휘 차원에서 모순의 관계를 보이는 경우에는 ‘모순어’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이 모순이 문장 관계에서 나타나게 되면 ‘부정’이나 ‘부정문’의 개념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2. ‘부정’과 ‘긍정’의 결정

부정과 긍정의 극성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특정 단어가 부정인가 긍정인가를 결정하는 데는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기준을 정한다 하더라도 모든 단어를 부정과 긍정으로 양분할 수는 없다.¹⁾ 다만 부정문의 가름 여부를 서술어의 성격에 따라 규정하려 한다면 이러한 기준을 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임지룡(1993 : 167~169)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하면 우선 형태상으로 소위 부정접사가 덧붙여 대립 관계가 성립될 때 표지가 없는 형태는 긍정, 부정접사가 덧붙은 형태는 부정이 된다. 이러한 한자어의 부정접사로 ‘부-, 불-, 무-, 비-, 미-, 반-, 몰-, 실-’ 등이 있다. 이는 매우 당연한 지적이다. 이러한 접사와 결합한 단어가 서술어로 쓰이게 되면 그것은 부정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접사의 개입이 없는 형태가 긍정문으로 설정될 수 있다.

1-(가) 그 사람은 비인간적이다.

(나) 그 사람은 인간적이다.

1) 특히 일반적인 체언의 경우에는 부정과 긍정으로 분류하는 것이 어렵다.

- (다) *그 사람은 비인간적이며 인간적이다.
 (라) *그 사람은 비인간적이 아니며, 인간적이 아니다.

2-(가) 정수는 매사에 무비판적이다.

- (나) 정수는 매사에 비판적이다.
 (다) *정수는 매사에 무비판적이며 비판적이다.
 (라) *정수는 매사에 무비판적이 아니며, 비판적이 아니다.

(가)와 (나)의 두 무장은 서로 모순 관계를 보이며, 소위 부정접사가 결합한 단어는 문장의 서술어로 기능하고 있다.

둘째로 평가 반의어와 정도 반의어가 서술어로 사용될 경우 어휘 항목이 양성적이며 칭찬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긍정, 음성적이며 비난의 뜻이 담긴 것은 부정이 된다.

부정 - 나쁘다. 어렵다. 게으르다, 악하다, 추하다 / 더럽다. 그르다, 틀리다, 굵다

긍정 - 좋다, 쉽다, 부지런하다, 선하다, 추하다 / 깨끗하다, 옳다, 맞다, 곧다

3-(가) 영화는 건강이 나쁘다.

- (나) 영화는 건강이 좋다.
 (다) *영화는 건강이 나쁘며 좋다.
 (라) *영화는 건강이 안 나쁘며 안 좋다.

4-(가) 철수의 답이 틀렸다.

- (나) 철수의 답이 맞았다.
 (다) *철수의 답이 틀렸으며 맞았다.
 (라) *철수는 답이 안 틀리고 안 맞았다.

셋째로, 척도성 반의어와 방향성 대립어가 비유적 용법으로 서술어로 쓰이게 되면 적극적인 양이 긍정, 소극적이 양이 부정으로 나타난다.²⁾

부정 - 짧다, 좁다

긍정 - 길다, 넓다.

5-(가) 명희에게 하늘이 정해진 명이 짧다.

(나) 명희에게 하늘이 정해진 명이 길다.

(다) *명희에게 하늘이 정해진 명이 짧고 길다.

(라) *명희에게 하늘이 정해진 명이 안 짧고 안 길다.

6-(가) 할아버지께서는 마음이 좁으시다.

(나) 할아버지께서는 마음이 넓으시다.

(다) 할아버지께서는 마음이 좁으시며, 넓으시다.

(라) 할아버지께서는 마음이 안 좁으시며, 안 넓으시다.

넷째 역동어의 경우 ‘오다’는 정상적인 상태이며 화자가 환영하는 상황에 쓰여 긍정, ‘가다’는 비정상적인 상태이며, 화자가 배척하는 상황에 쓰여 부정이 된다.

7-(가) 환자의 체온이 점점 내려 온다.

(나) 환자의 체온이 점점 내려 간다.

(다) *환자의 체온이 점점 내려 오며, 내려 간다.

(라) *환자의 체온이 점점 안 내려 오며, 안 내려 간다.

다섯째, ‘개폐’, ‘착탈’의 역동어의 비유적 용법에서는 개방적인 쪽은

2) 방향 대립어나 상보 대립어에 속하는 체언은 일단 논의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이 체언도 서술어로 쓰인다면 부정문 논의에 포함시켜야 하겠지만 체언의 주된 기능이 서술어와 거리가 있으므로 이 논의에서는 제외한다.

긍정, 패쇄적인 쪽은 부정의 극성을 지니는 경우가 있다.

부정 - 닫다, 감다, 오무리다, 쓰다, 맺다

긍정 - 열다, 뜨다, 펴다, 벗다, 풀다

8-(가) 재인은 그 사건 이후로 마음의 문을 닫았다.

(나) 재인은 그 사건 이후로 마음의 문을 열었다.

(다) *재인은 그 사건 이후로 마음의 문을 닫으며, 열었다.

(라) *재인은 그 사건 이후로 마음의 문을 안 닫으며, 안 열었다.

9-(가) 찬호는 누명을 썼다.

(나) 찬호는 누명을 벗었다.

(다) *찬호는 누명을 썼으며 벗었다.

(라) *찬호는 누명을 안 썼으며 안 벗었다.

이러한 대립어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부정문들은 ‘없다, 모른다’ 등의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부정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이다. 그러나 ‘부정’과 ‘부정문’의 개념을 의미론적인 층위에서 논의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러한 서술어를 포함한 문장도 부정문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부정문을 ‘의미론적(어휘적) 부정문’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3. 부정문의 형성

어떠한 조건에 있는 문장을 부정문으로 정할 것인가의 문제도 학자마다 서로 조금씩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부정이라는 것은 최소한 문장 단위에서 다루어야 할 서술상의 문제이며, 이 부정의 의미적 특성이 긍정문과의 상호 모순성에 기초하는 것이라는 점을 앞에서 밝혔으나 선행 연구가들은 이를 별로 주목하지 않은 것 같다. 이 또한 형태나 통사 구조에 관심을 두고 부정문이 연구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부정문의 조건과 관련하여 선행 연구자들의 논의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임홍빈(1987 : 78)

부정문 형성 조건

부정 극성을 띤 성분과의 공기 현상을 보이지 않는 한, 국어의 부정문은 부정소 ‘아니’나 ‘못’ 혹은 부정 서술어 ‘아니하-’나 ‘못하-’ 또는 ‘말-’과 같은 요소가 쓰인 문장을 말한다.

김석득(1992 : 719)

그 기본 형식은 「무엇은 무엇이 아니다」(S는 P가 아니다)이다. 그런데 “부정”의 개념에는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거나(부정단정), 옳지 않다고 반대·거부·배척하거나, 있음의 부정(없음), 대비적 열등(… -보다/만 못하다), 그리고 할 수 없음(불가능성)이나 정도에 못 미침(못하다), 행위금지(말라) 등을 내포한다.

박정규(1996 : 32)

국어 부정문의 형식적 요건

국어의 부정문은 부정사 ‘아니’나 ‘못’ 혹은 부정 서술어 ‘아니하-’나 ‘못하-’ 또는 ‘말-’과 같은 요소가 쓰인 문장을 말하는 것으로, 이들은 부정 극성을 띤 성분들과 공기 관계에 놓일 수 있다.

서정수(1996 : 949)

부정문(否定文, negative sentence)이란 일반적으로 부정 요소가 쓰여서 서술 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인하는 문장이다.

허재영(2002 : 42)

부정문의 개념

ㄱ. 부정문은 주어진 언어 내용을 ‘의미적으로 인정 하지 않는’ 문장

이다.

ㄴ. 부정문은 긍정 판단을 전제하며, 긍정 판단을 부정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낸다.

ㄷ. 부정문은 기능 범주로서 부정소를 통합한다.

이러한 논의에서 우선 중요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부정 극성을 띤 성분과의 호응 여부에 관한 것이다. 임흥빈(1987)의 경우 부정 극성 성분과 호응하는 ‘없다, 모르다’ 등은 부정문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그의 논의에 따르면 부정 극성을 지닌 성분과 호응을 할 수 없는 ‘반대하다, 거절하다, 다르다’ 등은 부정문을 만드는 서술어에 포함될 수 없다. 이에 반하여 박정규(1996)에서는 부정 극성어와의 호응 관계가 부정문 결정의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인정하면서도 ‘아니’, ‘못’, ‘말-’ 등의 개입이 없는 경우는 부정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부정 극성을 띤 성분이 부정문과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부정 극성을 띤 성분이 부정문의 필연적 관계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10-(가) 진회는 그런 일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나) 진회는 그런 일에 절대로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다) *진회는 그런 일에 절대로 반대할 것이다.

위의 예문에서와 같이 ‘절대로’라고 하는 성분은 ‘아니’가 들어간 부정문과 호응한다. 그러나 이 경우 이 성분을 생략해도 부정문 자체에 별다른 변화는 없다. 물론 (다)의 경우와 같이 ‘반대하다’라는 말과 호응을 보이지는 않지만 이는 긍정과 상대적인 개념인 부정의 의미를 결정하는 필수적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부정 극성 성분이 부정문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부정 요소’나 ‘부정소’라고 불리는 성분의 삽입 여부가 부정문 판정에 중요한 요소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부정의 의미는 긍정과 상대적이며 긍정을 전제로 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부정문은 긍정이 상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니, 못, -말’ 등의 부정소들이다. 이러한 부정소가 문장에 삽입된다면 그 문장은 부정문이 됨이 틀림없다.³⁾ 그러나 이러한 부정소를 긍정문에 삽입한다고 해서 그 문장이 모두 부정문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11-(가) 아, 이제 난 살았다. → *아, 이제 난 안 살았다 (살지 않았다.)

(나) 아, 이제 난 죽었다. → ?아, 이제 난 안 죽었다 (죽지 않았다.)

(대) 호수에는 고니가 있다. → *호수에는 고니가 안 있다 (있지 않다).

(태) 호수에는 고니가 없다. → *호수에는 고니가 안 없다 (없지 않다.)

위의 예문에서 나타난 ‘아니’의 제약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부정소의 분포 제약과는 다른 것이다.⁴⁾ 이러한 경우에는 부정소 ‘아니’의 개입이 별다른 이유 없이 2가지 유형에서 모두 불가능하다. 모든 경우에 부정문은 긍정문이 존재해야 하고, 긍정문에 부정소를 삽입하여 부정문을 형성한다면 위와 같은 예문의 경우에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위의 예문에서 (가)와 (대)는 (나)와 (태)와 모순 관계를 형성하여 부정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부정소 ‘못, -말’의 경우에는 단순히 부정의 의미만을 나타내는 부정소라고 보기 어렵다.

3) 물론 이러한 경우라도 부정소가 ‘어휘화’된 경우라면 다른 부정문과 동일하게 다루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잘되다 ↔ 안되다’, ‘잘생기다 ↔ 못생기다’, ‘잘나다 ↔ 못나다’의 관계에서 ‘안되다, 못생기다, 못나다’ 등은 그 안에 ‘안’이나 ‘못’이 있다고 해서 단순히 긍정문과 상대적인 부정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부정소의 삭제가 해당 긍정문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4) 부정소 ‘아니’의 경우, 소위 단형 부정문에서 4음절 이상의 다음절 용언이나, 복합어 등에서 제약을 보인다는 점은 일반적인 사실이다.

12-(가) 철호는 춤을 춘다.

(나) 철호는 춤을 안 춘다.

(다) 철호는 춤을 못 춘다.

위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니’와 ‘못’은 그 의미가 다르며, ‘못’의 경우 그 의미가 단순히 부정에 한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부정문에서 부정소의 삽입이 불가능한 긍정문이 존재하고, 이러한 긍정문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모순 관계에 있는 어휘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또한 부정소의 일부는 단순히 부정의 의미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할 때, 이 부정소의 삽입 여부만이 부정문 형성의 결정적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부정문의 형성 조건은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① 부정문에 대한 긍정문 설정이 가능하다.
- ② 부정문은 긍정문과 의미적으로 모순 관계를 형성한다.

III. 부정문의 유형 분류와 문제점

1. 기존 부정문의 유형 분류

국어에서 부정의 유형을 분류하는 방법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대표적인 몇몇 학자의 분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고영근·남기심(1993)에서는 부정문을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 그리고 ‘말다’ 부정문으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의 경우에는 다시 ① 서술어 앞에 ‘아니(안)’이나 ‘못’을 넣는 방법과 ② 서술어인 용언의 어간에 어미 ‘-지’를 붙이고 그 뒤에 ‘아니하다’를 써서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편의상 ①의 방법에 의한 부정문을 ‘짧은부정문’이라 하고, ②의 방법에 의한 부정문을 ‘긴부정문’이라고 부르기로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류 방식은 학교문법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다만 그 용어 사용에 있어서 고영근·남기심(1993)에서는 편의상이라고 밝히고 있는 명칭을 학교문법에서는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김석득(1992)에서는 부정법을 통어적 구조 형식과 형태적 구조 형식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⁵⁾ 형태적 구조 형식은 고유어 부정앞가지(선-, 설-)를 이용하는 방법과 한자어 부정앞가지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다시 나누어진다. 그리고 통어적 구조 형식에 있어서는 ① 부정잡음씨 ‘아니다’ ② 부정그림씨 ‘없다, 못하다’ ③ 부정어찌씨 ‘아니, 못’ ④ 도움풀이씨(도움법)에 의한 방법 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통어적 구조 형식과 형태적 구조 형식은 서로 넘나들면서 부정을 나타낸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서는 ③ 부정어찌씨가 앞에서의 단형부정문에 해당하고 ④의 도움풀이씨를 이용하는 방법은 앞의 장형부정문에 해당하는 것이다.

서정수(1994)에서는 부정의 방식을 문장 유형이나 성분에 따라 크게 5가지로 나누어 ① 기본 부정법, ② 명령/청유 부정법, ③ 특수 부정법, ④ 접두 부정법, ⑤ 겹부정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기본 부정법에 있어서는 선행 부정(pre-verbal negation), 즉 단형(short form)과 후행 부정(post-verbal negation), 즉 장형(long form)으로 다시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선행 부정과 후행 부정 그리고 ②의 명령/청유 부정법은 각각 고영근·남기심(1993)이 밝히고 있는 단형 부정문과 장형 부정문, 그리고 ‘말다’ 부정문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③ 특수 부

5) 김석득(1992 : 725~727)에서는 부정의 형식에 ‘준부정’이라는 것을 설정하고 있다. ‘선-, 설-’ 등이 고유어 부정앞가지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하면서 부정앞가지 검증 여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설익다’는 ‘익다’와 ‘안 익다’와의 중간상태이다. 그러므로 ‘설익다’의 ‘설-’은 ‘영(Ø)’ 형태의 긍정 형식과 ‘비(아님)’의 부정 형식의 사이에 있는 “준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법과 ④ 접두 부정법도 각각 김석득(1992)의 부정 잡음씨 ‘아니다’에 의한 부정문과 형태적 구조 형식의 부정을 나타낸다. 서정수(1994)에서는 다른 분류와는 달리 이중 부정의 내용을 다른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자들의 분류를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2. 부정문 분류의 문제점

2.1. 단형 부정문과 장형 부정문

‘짧은 부정문(단형부정문)’과 ‘긴 부정문(장형부정문)’의 명칭 선택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고영근·남기심(1993)에서도 이는 어디까지나 편의상 채택한 용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 용어가 학교 문법에서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짧거나 길다라는 개념은 우선 상대적인 것으로 어떠한 개념 규정을 위해서는

적절한 용어가 되지 못한다. 용언의 음절 수에 따라서는 짧은 부정문이 긴 부정문보다 더 길 수도 있다.⁶⁾

13-(가) 철수는 순이를 아니 잡았다.

(나) 철수는 순이를 잡지 않았다.

(대) 그는 밥을 아니 먹는다

(태) 그는 밥을 먹지 않는다.

위의 예문에서는 비록 준말과 본디말이 섞여 쓰이고 있지만 음절 길이로 보면 짧은부정문과 긴부정문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같은 의미의 2유형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13-(대)와 (태)를 비교해 보면 긴부정문과 짧은부정문은 그 문장의 길이 측면에서 보면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길이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적용하는 것이냐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부정소가 결합하는 부분에서 문장의 종결부까지의 길이로 한정할 경우에는 오히려 긴부정문이 더 짧을 수 있다. 부정소를 포함하는 서술어로 그 길이로 그 범위를 한정할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어느 한 쪽이 분명히 짧거나 긴 것이 아니므로 부정문을 분류하는 데 이러한 길이 관계로 설명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이다.

물론 위의 예문에서 모든 부분을 줄기 전의 단어로 바꾼다면 이러한 길이의 문제는 별다른 예외를 찾기 어려워진다. 그렇지만 국어학의 용어 선택에 있어서 간결성도 중요하지만 그 언어적 특성을 지적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교육적으로는 더 훌륭한 것이 될 수 있을

6) 박정규(1996 : 26~27)에서는 이러한 장, 단형의 분류가 단순히 음절수에 의한 문장 길이의 차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단형 부정문은 '단문'으로 처리하고 장형 부정문은 '복문'으로 처리하는 구조적 관점을 최대한으로 반영한 용어라고 밝히면서, 본인은 장형 부정문도 '단문'이기 때문에 '부정사 선행 부정문'과 '부정사 후행 부정문' 또는 '안 부정문'과 '-지 않- 부정문'이라는 용어가 보다 적절하다고 밝히고 있다.

것이다.

2.2. 선행 부정문과 후행 부정문

장·단형 부정문 명칭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정소 선행 부정문과 부정소 후행 부정문(또는 선행 부정문과 후행 부정문)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는 서정수(1994)의 기본 부정법에서 분류한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부정소 ‘안(아니)’의 위치에 따라 부정문을 나누게 되면,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부정의 의미를 받는 용언이다. 부정을 하게 되는 용언에 부정소가 선행하느냐 후행하느냐에 따라 선행 부정문, 후행 부정문을 나누는 것인데 과연 후행 부정문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14-(가) 진호는 밥을 안 먹었다.

(나) 진호는 밥을 먹지 아니 하였다.

기준에 후행 부정문으로 다루는 (나)의 경우 ‘먹다’라는 용언의 뒤에 ‘아니’가 위치하지만 이 경우 (나)의 ‘아니’의 뒤에 존재하는 ‘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인가가 문제이다. (나)와 같은 문장이 단문이나 복문이나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며, 이 해결을 위해서는 ‘-지’의 성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일반적인 후행 부정문을 살펴보자.

15-(가) 철수는 편지를 쓰지 않는다.

(나) 새싹이 새파랗지 않다.

(다) 오늘 노을은 어제처럼 검붉지 않다.

일반적으로 후행 부정문에서는 선행 부정문과는 달리 별다른 제약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후행 부정문에서 반드시 부정소에 선행하는 것이 ‘-지’이다.⁷⁾ 이 ‘-지’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도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미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통문법과 최현배(1937)에서는 부사형 어미의 일종으로 다루고 있으며, 박승빈(1953), 엄정호(1987)에서는 명사형 어미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특히 변형문법의 도입과 더불어 ‘-지’를 명사형 어미 ‘-기’가 부정법에 쓰일 때 변형된 것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또 종결어미 ‘-지’와 동일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도 있는데 임흥빈(1973)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김동식(1980)에서는 이 ‘-지’를 보문자로 처리하였다. 이 중에서 우선 부사형 어미설은 제외된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종결어미설인데 이도 합리적인 것이 못 된다.

16-(가) 그가 출근하지 않았다.

(나) *그가 출근 안 하지 않았다.

(다) 그가 출근했는지 물랐다.

(라) 그가 출근했지

(마) 그가 출근했었음을 보고받았다.

위의 예문에서 살펴보면 우선 10-(가)는 후행 부정에 나타나는 ‘-지’인데 10-(라)에 나타나는 종결 어미 ‘-지’와는 다르다. 후행 부정문의 ‘-지’는 시제 형태소의 결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경우의 ‘-지’는 그렇지 않다. ‘출근하다’는 동사에 해당하므로 ‘-지’가 만약 종결 어미라면 반드시 시제 형태소와의 결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10-(나)에서 이중 부정이 비문이 되는 이유도 설명하기 어렵다. 이는 오히려 10-(다)는 종결 어미라 볼 수 있다 하더라도 후행 부정

7)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문에서 ‘-지’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일반적인 부정문의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고 부정문에 있어서 관용적인 표현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예> 이제는 때도 박도 못 한다.

문에 나타나는 ‘-지’를 종결어미로 보기에겐 힘들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러한 특징을 보면 10-(ㄴ)의 일반 보문자로 보기에든 문제가 생긴다. 오히려 시제 형태소가 결합하지 못 하는 것은 명사 파생 접사 ‘-기’와 그 성격을 같이 하는 것이다. 명사 파생 접사로 파악할 경우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명사 파생 접사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선행 성분이 절 이상의 구조를 갖을 수 없다. 그런데 후행 부정문의 ‘-지’의 경우는 그 선행 성분이 절이다. 이는 오히려 보문자와 비슷한 성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후행 부정문 ‘-지’의 정체를 아직까지는 정확히 밝힐 수는 없다. 다만 ‘는/은, 도, 만’ 등의 보조사 결합이 가능하고 절을 지배하는 보문자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 명사형 어미 내지는 명사 파생 접사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⁸⁾

결국 후행 부정문의 ‘-지’를 어떠한 범주로 보든지 간에 선행 절을 명사처럼 기능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임은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후행 부정문의 ‘-지’는 선행 성분을 명사화한 후 그 뒤에 부정소가 후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소위 후행 부정문의 ‘-지’에 선행하는 것은 절로 보아 전체를 복문으로 보아야 하고 이렇게 볼 경우에는 안긴문장의 서술어 다음에 ‘아니’가 나타나기 때문에 후행 부정이라고 하기 어렵다. 결국 전체 안은문장의 서술어는 ‘아니’의 다음에 나오는 ‘하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논리로 본다면 모든 부정문은 ‘선행 부정문’이 되는 셈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소위 장형 부정문에서 드러나는 문장의 중의성을 보다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정소가 서술어와 관련이 된 것인데 소위 후행 부정문에서 본래 서술어의 뒤에 부정소가 위치한다는 것은 우리말의 일반적인 특성에서도 벗어나는 것이다. 물론 선행, 후행 부정문이란 용어가 부정소가 수식하는 요소가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따라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말할

8) 서정수(1994 : 862)에서도 ‘-지’의 정확한 설정에 있어서 난점들을 설명하면서 “다만 이 보문자는 구태여 그 관련 범주를 따진다면 명사화 요소에 가장 가까운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하다고 생각된다.”라고 밝히고 있다.

수 있다. 그러나 부정이라는 의미 작용은 앞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문장 단위 이상에서 논의되어야 하고 이는 결국 문장의 서술어와 관련을 갖는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부정의 의미를 받아야 하는 서술어 다음에 부정소가 등장한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소가 등장하고 이 부정소의 다음에 나오는 서술어를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우리말의 특성을 살리는 설명이 될 것이다.

2.3. ‘아니다’ 부정문

후행 부정문 설정이 불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아니다’와 관련된 부정문도 생각해 볼 일 있다. 이미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아니다’를 이용한 부정문은 일반적으로 ‘긴부정문과 짧은부정문’ 또는 ‘선행 부정문과 후행 부정문’의 체계에서는 제외되는 별개의 것으로 처리해 온 것이 사실이다.

17-(가) 계곡에는 물이 많지 않다.

(나) 산행 중에는 아무 것도 안 먹는다.

(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유명인사가 아니다.

17-(가)는 복문이라는 관점에서는 선행 부정문이 분명하고, (나)는 선행 부정문이다. 그런데 (다)의 경우에는 그 부정소의 위치를 잡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 이 ‘아니다’의 부정문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석득(1992)에서는 ‘부정 잡음씨’로 분류했고, 서정수(1994)에서는 ‘특수 부정법’으로 분류한 것이다. 그러나 부정소의 선행, 후행 관계로 살펴보면 이는 분명히 선행 부정문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물론 이는 ‘아니다’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아니다’를 이용한 부정문은 선행하는 부정의 대상이 체언류나 절 전체를 부정하는 경우에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아니다’에서 ‘아니’를 분리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분리해 낼 수 있다면 그 ‘아니’의 품사와 특징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문젯거리로 남는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하든지, ‘아니다’에서 ‘아니’를 분석해 내는 것은 일반적인 문법적 연관성 측면에서도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며, ‘아니다’의 ‘아니’는 부정소 ‘안(아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⁹⁾ 이렇게 볼 때 결국 ‘아니다’를 이용하는 부정문의 경우에도 그 기본적인 성격은 선행 부정문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아니다’가 나타나는 환경을 살펴보자.

18-(가) 철수는 어린 아이가 아니다. ↔ 철수는 어린 아이이다.

(나) 이 더하기 삼은 육이 아니다. ↔ 이 더하기 삼은 육이다.

(다) 그 사람은 내가 찾는 순이가 아니다. ↔ 그 사람은 내가 찾는 순이다.

(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자 함이 아니다. ↔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자 함이다.

18에서 ‘아니다’는 소위 지정사 구분의 부정에 쓰인 것으로 부정의 대상은 부정소 ‘안(아니)’의 앞에 있는 체언이나 명사형 어미와 결합한 절 전체가 아니라 지정사 ‘이다’라고 보아야 한다.

사실 부정소는 체언을 부정할 수 없다. (가), (나), (다)의 경우 부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각각의 체언이 아니라 체언이 지정사와 결합하여 이룬 문장이다. 우리말의 합성용언과 파생용언에서 선행하는 어근이 체언일 경우에 소위 선행 부정문이 불가능한 이유도 이러한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9 서정수(1994 : 865)에서는 “이론적인 기술에서는 <아니+이다>와 같이 분석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본다”고 하면서 “현실적으로는 관례에 따라 ‘아니다’로 표기하더라도 문법적인 기술과 설명은 ‘아니/안’을 ‘이다’와 분리하여 <6>처럼 ‘아니 이다’로 분석하여 설명하면 되는 것이다. 이 문제는 학교 문법의 서술에서도 재고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19-(가) 진경과 유리는 대화하지 아니 한다.

(나) 진경과 유리는 대화 안 한다.

(다) *진경과 유리는 안 대화한다.

결과적으로 ‘아니다’를 이용한 부정문을 따로 설정하여 부정문의 체계를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 결국은 모두 선행 부정문의 일부가 되고, 후행 부정문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굳이 선행 부정문이라고 분류할 필요가 없다.

2.4. 접두사에 의한 부정문

고영근·남기삼(1993)에서 설정하지 않았으나 김석득(1992)와 서정수(1994) 등에서는 소위 부정접두사가 결합한 양식을 형태적 구조 형식에 의한 부정문에 포함시켰다. 특히 김석득(1992)의 경우에는 ‘선-, 설-’ 등의 고유어 접두사를 준부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서정수(1994)에서는 이들을 부정 접두사로 보고 있지 않다.

우선 ‘부정 접두사’란 용어가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부터 생각해 보고자 한다. 부정은 문장 단위 이상과 관련이 있으며 대응되는 긍정문과 문장의 서술성에서 모순 관계를 보인다고 앞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접두사’는 문장과 관련된 것이기보다는 단어의 파생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어근에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는 것이 접사의 주기능이지, 단어와 결합하여 부정문을 만든다는 설명은 부적절하다. 이러한 단어가 부정문을 이루는 경우는 문장에서 서술어로 기능하는 경우로 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장에서 서술어 이외의 기능을 담당할 경우에는 부정 접두사가 결합하였다 하여도 부정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20-(가) 저는 이 시대의 비양심을 고발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나) 현대는 물개성이 지배하는 사회이다.

(다) 그는 미개척지를 탐사하고 돌아왔다.

위 보기에는 부정 접두사가 결합한 단어가 쓰이고 있으나 이 문장을 부정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부정 접두사란 용어 자체에 문제가 있다. 물론 예문의 ‘비-, 물-, 미-’ 등의 접두사가 결합하여 서술어로 쓰이면 그 긍정문의 부정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서술어가 아닌 경우에는 원래의 단어와 ‘모순’ 관계를 보이는 단어를 생산하는 데 그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정 접두사’라는 용어보다는 오히려 ‘모순 접두사’라는 용어가 보다 정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 접두사가 부정문의 범주에서 논의되는 경우는 앞에서 밝힌 의미론적(어휘적) 부정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문장에서 서술어로 기능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대개 이 모순 접두사가 결합한 어근의 경우, ‘아니, 못, -말’ 등이 사용된 부정문으로 변환이 가능하다. 이를 근거로 이 접두사가 결합한 단어를 부정문 형성의 중요한 요소로 포함시킨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문자 생활을 포함한 언어 생활의 특수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단어의 형성법은 우리가 한문의 문장 구조에 익숙하고 이를 조어법에 이용한 결과인 것이다. 한문 구조를 조어법에 이용하여 단어를 만들다 보니 자연 한문 문장의 구조와 유사하게 되었고 이러한 한문 문장 구조를 갖은 단어는 한문을 해석하는 과정을 거치면 자연히 문장처럼 재생산되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단어는 어디까지나 단어일뿐 문장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접두사의 결합을 부정문 형성의 결정적인 계기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다음으로 김석득(1992)에서 고유어 부정앞가지로 설정한 ‘설-, 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석득은 이들 접두사에 대해 ‘준부정’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기도 했는데 사실상 이러한 용어나 그 의미는 ‘부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21-(가) 선- : 선무당, 선잠

(나) 설- : 설익다, 설잡다, 설잡죄다, 설자다

(가)의 예는 체언에 해당하므로 일단 부정의 개념이 어울릴 수 없으며, 이를 문장으로 변형시킨다 하더라도 그 긍정문을 잡기가 쉽지 않고, 모순 의미와도 관련이 없다. (나)의 경우는 용언에 사용된 것이기는 하지만 역시 긍정문을 설정하는 데 문제가 있다. 또한 이러한 용언은 부정소 '아니'와 연결되어 부정문을 만들 수 있는데 이 때 원래 문장이 부정문 이라면 이중 부정문이 되는 셈이지만 우리의 언어 직관상 '고구마가 설 익지 않았다.'와 같은 문장을 이중부정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결국 이 '선-, 설-' 등의 접사는 부정문 형성과는 관련이 없으며, 다만 다른 어근과 결합하여 어근의 의미를 더하거나 제한하는 수식의 기능을 하여 새로운 단어 파생에 관여할 뿐이라고 할 수 있다. '준부정'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선 부정문에서 이러한 요소들은 삭제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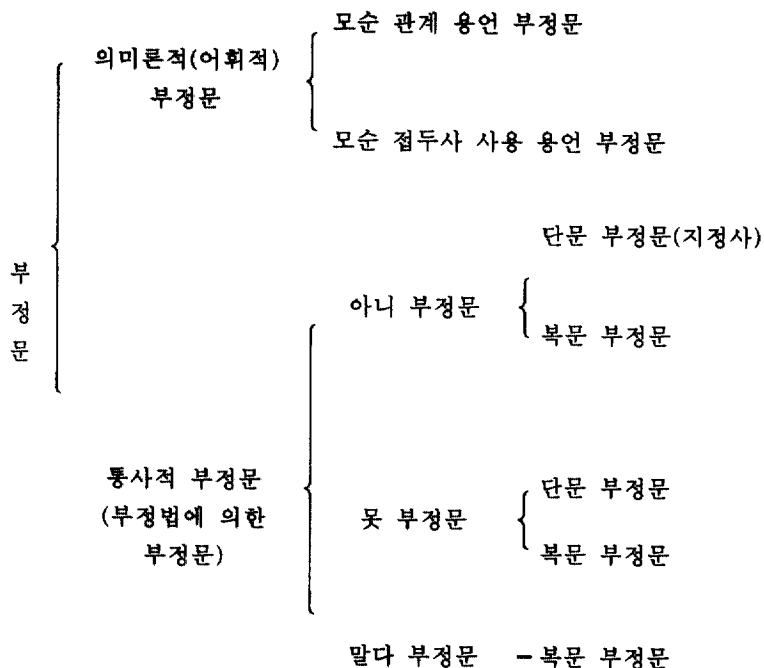
IV. 새로운 부정문의 유형 분류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국어 부정문의 유형을 새롭게 분류하고자 한다. 우선 부정의 개념을 의미론적을 해석하여 부정문을 설정하면 기존의 논의보다 부정문의 범주가 상당히 넓어지게 된다. 부정소의 개입 여부가 부정문 형성을 결정하던 입장에서, 대당 긍정문의 설정 가능성과, 그 긍정문과 부정문 사이에 모순 관계가 형성되는 용언이 쓰였다면 이들은 모두 부정문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학자가 주장했던 '죽다, 없다, 모르다'뿐만 아니라 모순 관계의 설정이 가능한 여러 용언이 서술어로 쓰인 문장은 부정문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특히 기존에 형태론적 방법으로 부정문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아온 모순 접두사의 결합에 의해 형성된 단어들도 서술어로 쓰인 경우에만 부정문에 포함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문을 '의미론적(어휘적) 부정문'으로 설정한다.

다음으로 부정소의 개입에 따른 부정문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기존의 단형부정문(짧은 부정문), 장형부정문(긴부정문) 또는 선행 부정문, 후행 부정문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소위 부정법에 의한 부정문의 형성에서는 부정소의 배치 관계를 보면 모든 부정문은 서술어 기능을 담당하는 용언에 선행한다. 특히 '아니다'를 사용하는 부정문의 경우도 '아니'가 지정사의 앞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역시 선행 부정문으로 보아야 한다. 이럴 경우 선행 부정문의 설정은 무의미하므로 부정소의 형태에 따라 부정문의 유형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즉 개입하는 부정소의 종류에 따라 '아니 부정문', '못 부정문' 그리고 '말다 부정문'의 설정이 가능하고 '아니 부정문'과 '못 부정문'의 경우 부정소의 형태에 따라 '안(단문) 부정문, -지 않(복문) 부정문'으로 분류할 수 있고, '아니다(지정사) 부정문'의 경우는 단문 부정문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못 부정문'의 경우에도 다시 '못(단문) 부정문'과 '-지 못(복문) 부정문'으로 유형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겹부정문의 설정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겹부정법은 앞에서 언급한 부정문 형성의 방법이 중복되어 형성되는 부정문이다. 겹부정문만의 독특한 부정 양상이나 유형의 특징이 두드러지지 못하고, 다만 여러 유형의 부정문이 이중, 삼중으로 결합한 문장인 것이다. 그리고 그 문장의 의미를 살펴보면, 의미적으로는 부정문이 아닌 경우도 상당수 있어서 부정문의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자 한다. 또한 부정문을 형성하는 방법의 반복적 적용에 불과하므로 분류의 경제성과 간편성을 위해서도 새로운 유형의 설정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

이상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여 보이면 아래와 같다.



V. 결 론

지금까지 부정문과 관련하여 그 개념과 형성 조건,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부정문의 유형 분류를 살펴보고 그 중 범주와 용어 사용, 그리고 분류 항목에 대해 다시 살펴보았다.

우선 부정문의 개념과 형성 조건에서는 부정소의 유무보다는 긍정문과의 관계에서 보이는 모순이라는 의미 관계에 중점을 두어 정리하였다. 이렇게 부정문을 정의할 경우 부정문의 범주는 기존의 ‘아니, 못, -말’ 중심의 경우보다 상당히 넓어지게 된다. ‘없다, 모른다, 부정하다, 나

쁘다, 틀리다' 등 상당수의 어휘가 부정문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부정문을 의미론적(어휘적) 부정문이라고 보았다. 물론 이러한 어휘들의 의미적 특징을 좀더 파악하여 보면 더 많은 어휘가 부정문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부정문의 용어에서는 소위 '단형 부정문'과 '장형 부정문', '(부정사)선행 부정문'과 '(부정사)후행 부정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부정문이 유형을 문장의 길이에 따라 정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못하며, 서술어와 부정소의 위치와 관련해서는 '후행 부정문'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지'가 절을 받는 것으로 보아 '하다'가 서술어이므로 '후행 부정문'이란 용어가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이상이 내용에 따라 부정문을 어휘적 부정문과 통사적 부정문으로 나누고 통사적 부정문은 다음 단계로는 부정소의 종류와 문장 구조에 따라 부정문을 분류하였다. 이 과정에서 겹부정문은 부정문 형성 과정이 중복된 것으로 보아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

앞으로 부정문에 대해서는 의미론적 부정문과 통사론적 부정문의 차이점에 대해서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개별 어휘의 특징을 의미론적으로 파악하여 의미론적 부정문에 대한 어휘 목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문 부정문과 복문 부정문의 통사적 차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보다 궁구할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

- 고영근·남기심(1995), 표준 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고창수(1985), “어간 형성 접미사의 설정에 대하여,” 한국어학연구 7, 홍문각.
- _____(1992), “국어의 통사적 어형성,” 국어학 22.
- 구종남(1990), “부정문의 통사적 구조와 의미,” 한국언어문학 28집, 한국언어문학회.
- _____(1992), “국어 부정문 연구,” 전북대박사학위 논문.
- 金光海(1983), “繫辭論,” 난대 이웅백 박사 회갑기념논총, 보진재.
- 김동식(1980), “현대 국어부정법의 연구,” 국어연구 42.
- _____(1990), “否定法,” 國語研究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 김석득(1992), 우리말 형태론, 탑출판사.
- 김정은(1995), 국어 단어형성법 연구, 박이정.
- 南豐鉉(1976), “國語 否定法の 發達,” 문법 연구 3.
- 박순함(1967), “A Transformational Analysis of Negation in Korean,” 박사학위논문(The University of Michigan)
- 박승빈(1953), “‘디’는 무엇인가?,” 정음6.
- 박정규(1996 ㄱ), “부정 부사 ‘안(아니)’의 접사적 성격에 대하여,” 국제어문 제17집.
- _____(1996 ㄴ), 국어 부정문 연구, 보고서.
- 박형우(2000), “단형 부정문의 부정어 ‘안(아니)’의 접두사 설정에 대하여,” 한국어문교육 제9집,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 서상규(1984), “국어 부정문의 의미 해석 원리,” 말9.
- 성광수(1971), “부정 변형에 대하여,” 국어국문학52.
- 송석중(1973), “Some negative remarks on negation in Korean,” 어학연

구 9-2.

- _____ (1981), “한국말의 부정의 범위,” 한글 173 • 174 합본호.
- 시정곤(1993), “국어의 단어 형성 원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안병희(1959), “中期語의 否定語 ‘아니’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20호.
- 양동휘(1976), “Korean Negation Revisited,” 언어 1-1.
- 엄정호(1987), “장형 부정문에 나타나는 ‘-지’에 대하여,” 국어학 16.
- _____ (1989), “소위 지정사 구문의 통사구조,” 국어학 18.
- 오준규(1971), “On the Negation of Korean,” 어학연구 7-2.
- 劉昌惇(1980), 語彙史 研究, 二友出版社.
- 이경우(1983), “否定素 ‘아니’와 ‘못’의 意味,” 국어교육 44 • 45, 한국 국어교육 연구회.
- 이관규(1999), 「학교 문법론」, 월인.
- 이기용(1979), “두 가지 부정문의 동의성 여부에 대하여,” 국어학 8.
- 李浩權(1987), “華嚴經의 諺解에 對한 比較研究,” 國語研究 78호, 國語研究會.
- 이흥배(1970), 「A Study of Korean Syntax : Performatives, Complementation, Negation and Causation」, 범한서적 주식회사.
- 임흥빈(1973), “부정의 양상,” 서울대학교 교양과정부 논문집 5.
- _____ (1987), “국어 부정문의 통사와 의미,” 국어생활 10.
- _____ (1989), “통사적 파생에 대하여,” 어학연구 25-1.
- 최현배(1937), 우리말본, 연희전문출판부.

{논문 발표일: 2002년 8월 2일(제25회 청람어문교육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 게재일 : 2003년 1월 10일}

<초록>

부정문의 유형 분류

박 형 우

본고는 국어 부정문의 유형 분류에 대한 논의이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서 우선 부정문과 부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명하고, 기존의 부정문 분류 논의를 반성적으로 검토한 후, 부정문의 의미와 선행 연구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새롭게 부정문의 유형을 결정하고자 하였다.

국어 부정문은 그 의미와 형성 조건으로 보아 ① 대당 긍정문의 형성이 가능하고, ② 두 문장이 의미적으로 모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하여 국어 부정문의 유형을 재분류하면 우선 어휘적 부정문과 통사적 부정문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그 중 어휘적 부정문은 다시 모순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를 사용한 부정문과 모순 관계를 나타내는 접사를 사용한 부정문으로 나뉜다. 또한 통사적 부정문의 경우에는 부정소의 종류에 따라 ‘아니 부정문’, ‘못 부정문’, 그리고 ‘말다’ 부정문으로 나뉘고 그 중 ‘아니 부정문’과 ‘못 부정문’의 경우에는 다시 ‘단문 부정문’과 ‘복문 부정문’으로 분류하였다.

특히 본고에서는 모순 관계를 나타내는 여러 어휘(죽다, 없다, 모르다 등)가 쓰인 문장을 부정문의 범주에 포함시켰으며, ‘단형 부정문과 장형 부정문’, ‘선행 부정문과 후행 부정문’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분류 논의를 ‘단문 부정문과 복문 부정문’의 대립으로 분류하였다. 또 흔히 ‘아니다 부정문’으로 분류하는 부정문은 부정소의 위치와 대당 긍정문의 성격에 따라 ‘단문 부정문’의 일환으로 분류하였다.

【핵심어】 부정문 유형, 단문 부정문, 복문 부정문, 부정문의 형성 조건

<Abstract>

Classifying the patterns of Korean negative sentences

Park, Hyeong-Woo

This thesis focused on classifying the patterns of Korean negative sentences. The method to solve these problems is as follows. First, we investigated the meaning of negative sentences and negation. Second, we reviewed the discussion on this subject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And then, considering the meaning of negative sentences and the problem of established study, we tried to decide to classify the patterns of Korean negative sentences.

In the view of meaning and condition of formation, Korean negative sentences are stipulated as follows. First, negative sentences must be able to form the affirmative sentences against negative sentences. Second, semantic relation of affirmative sentences and negative sentences must be contradictory.

Based on these, Korean negative sentences can be classified into the lexical negative sentences and the syntactic negative sentences. Also the lexical sentences are able to be grouped into two classes. One is the negative sentences formed by lexical items that have the meaning of contradiction, the other is the negative sentences formed by affixes that have the meaning of contradiction. And the syntactic negative sentences can be grouped into '/ani/ negative sentences', '/mot/ negative sentences' and '/malta/ negative sentences'. Each of these three negative sentence can be grouped into two categories : simple negative sentences and complex negative sentences.

In this classification, the negative sentences especially formed by

lexical items(/čukta/, /əpsta/, /molita/ etc.) that have the meaning of contradiction, are included in Korean negative sentences. Most studies on this subject, classify Korean negative sentences into 'short form negative sentences vs long form negative sentences' or 'pre-verbal negative sentences vs post-verbal negative sentences'. But in this thesis, Korean negative sentences are classified into 'simple negative sentences vs complex negative sentences'. Additionally, '/anita/ negative sentences' classified separately in the established study, are included in 'simple negative sentences' in the point of the position of negative element(neg.) and character of affirmative sentences against '/anita/ negative sentences'.

【Key words】 patterns of Korean negative sentences, simple negative sentences, complex negative sentences, condition for formation of Korean negative sentences